



다구를 찾아서 2 초의 선사 <끝>

우리 차에 대한 자긍심 남달랐다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한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을 이끈 장본인이다. <동다송>은 차의 역사, 제다(製茶), 차의 효능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초의 선사는 자신이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차를 만들어 마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의 이론을 종합해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차의 효능이 중국차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얼마나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이 남달랐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초의 선사가 <동다송>을 짓게 된 경위는 <해거도인에게 올리는 글(上海居道人書)>에 소상하게 적혀있다. 해거도인 홍현주(洪顯周, 1793~1865)가 진도부사 변지화를 통해 초의 선사에게 차에 관해 하문(下問)한 것을 답해서 지은 것이 바로 <동다송>이다.

홍현주가 누구던가. 숙선옹주의 남편, 즉 정조의 부마가 아니었던가. 당시는 승려들의 도성(都城) 출입조차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렇게 불교와 승려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절, 부마에게 부탁을 받고 글을 엮을 정도였다면 초의 선사에 대한 평판이 어땠는지는 알만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다송>은 목판본으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필사된 4부의 필사본(筆寫本)만이 전해지고 있다. 각각의 필사본에는 중요한 부분 몇 군데에서 글자가 서로 다르기도 하며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있기도 해 초의선사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작자미상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 진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상위에 돛자리를 깔고 가부좌한 자세에 양손에는 각각 불법을 상징하는 염주와 금강저를 쥐고 있는 전신좌상으로 그려진 이 인물은 초의 선사이다. 옷주름과 소품들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명암법에서 서양화법의 영향이 보인다. 일설에는 이 진영의 작자가 소치 허련(小痴 許鍊, 1808~1893)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활달하다기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필치와 붉은 가사의 두드러지고 과

장된 채색효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동의하길 주저하고 있다. 한편 화면 상단 유경도인 신관호의 제찬 중에 “초의 선사가 84세에 입적하셨다”고 한 것이나 “찬문을 을축년(1865)에 지었다”는 내용은 초의 선사가 81세를 일기로 병인년(1866)에 입적했다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초의선사 뒤편에 보이는 다관은 그의 차에 대한 애정과 차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이러한 논란을 짐짓 모른 척 하고픈 심정이다. 왜냐하면 초의 선사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 특히 차에 관해서는 드물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에 관련한 자료의 부족은 초의 선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차에 관한 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기록과 유물, 유적 모두가 그렇다. 차의 역사도 길고 다사(茶書)와 유물 또한 풍부한 중국이나, 차 문화에 관련한 자료의 집대성이 진즉에 이뤄진 일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차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다구와 생활용구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히 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분류와 구분이 돼있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다구를 찾아서”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지난 6개월간 연재를 했다. 시작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다구와 음다풍속을 엮을 심산이었지만 거꾸로 다른 나라의 다구가 중심이 돼버렸다. 아마도 연재를 읽는 독자들로서는 우리의 다구가 드물게 소개되는 것이 의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차에 관련된 유물이 아직까지 정리되고 정의된 것이 충분치 못해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역사학자, 특히 고미술과 도자사 연구가, 도예가 등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차를 처음 접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구의 선택이라고 말한바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 역시 이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문화가 됐다. 차와 그에 수반된 문화를 접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이면의 선택과정을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회를 대신한다.

백기란 bdba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초의 선사 진영(草衣禪師眞影). 작자미상. 견본채색(絹本彩色). 87.0×54.0cm. 디아모레 뮤지엄 소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45 감사 팔상전 단풍나무



공주 감사팔상전 뜰에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때는 단풍나무가 꽃고추처럼 패했다. 유난히 싱그러운 모습에 눈이 갔었다.

바람 한 점 없었던 그 날, 목마른 햇살이 나뭇잎에 묻어서 초목을 조금씩 물어갔다. 몇 해 지나 가을에 가봤더니 단풍나무가 없었다. 그루터기만 남아 마른 낙엽에 휩쓸리고 있었다.

말없이 이사 가버린 어릴 적 한동네 여자아이처럼 섭섭했다. 대문 앞에서 이름만 부르다 그냥 돌아왔던 그 때처럼 사연도 묻지 못하고 그루터기만 바라보다 돌아왔다. 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연도 물을 새 없이 떠나갈 때가 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7도 상작천락묘성계장엄

천인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다. 춤추는 천녀의 모습과 날아가고 있는 구름, 공중에 떠다니는 칠보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이루고 있다. 도상은 <불설아미타경>의 5쪽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3분의 1까지 이어진다.

“사리불아, 저 부처의 나라에는 언제나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이 땅이 된다.”(又舍利佛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맑고 미묘한 음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 천 가지 음악보다, 혹은 천룡성왕의 음악보다, 더 나아가서는 육육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 천억 만 배나 더 훌륭 하느니라. 또한 보배 나무의 음악 외에도 자연히 울리는 천만 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설하는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아늑해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으뜸이니라.”

어느 큰 스님이 아침마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합창 교향곡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깨달음을 이룬 소리”라고 말

씀하는 것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수승한 음악이 극락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음악으로 살아나, 다시 내 귀를 아름답고 황홀하게 울리고 있다. 산속에 자리한 치악산 명주사는 아침마다 새소리로 장엄된다. 자연 속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를 들으면 바로 저러한 소리가 극락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미묘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닐까 상상해본다.

훌륭한 고전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장중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음악소리

가 매일 울려 퍼지면서 그 음악소리가 나의 미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닦아주는 청량제가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이 설하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 보자. 생동감 있는 표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이 삽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가슴에 새겨, 험난하고 고난에 찬 사바세상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로 치유돼, 행복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극락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꿈꾼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7도 상작천락묘성계장엄(常作天樂妙聲界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turn'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과(佛法) 과과(果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佛法) 과과(果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佛法) 과과(果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佛法) 과과(果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佛法) 과과(果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